

현장을 가다 기업을 만나다 미래를 보다



대한민국 곳곳이 꿈틀대고 있다.
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창원지역 전력수요를 대비
 해 건설 중인 345KV 창원변전소가 11월 가압을 목표로
 82%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.
 서울과 부산을 잇는 새로운 철도교통망의 축, 원주~제
 천 복선전철 건설이 내년 완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.
 7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
 위해 대구모 전력설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.
 44년 된 영동화력 1호기가 우드펠릿을 연료로 하는 친
 환경발전소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.
 이 모든 현장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. 역동성을 자랑
 한다. 그 안에 맘 흘리는 기업과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.
 당당한 그 모습이 아름답다.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가
 능한 이유다.
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.
 뜨거운 태양과 마주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기업들의
 모습을 담았다.

진시현 기자 jinsh@

飛上 [비상] ...

준비는 끝이 났습니다.
 끊임없이 다져온 변화와 혁신의 노력.
 희망과 행복은
 더 먼저 준비된 것 처럼
 고객을 향하고 있습니다.

더 크게 도약하겠습니다.
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
 고객 마음속 비상을 꿈꾸는
 (주)보성엔지니어링.

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.

전차선 공사 / 철도신호공사 / 전력공사 / 정보통신공사 / 소방설비공사 / 일반전기공사

 **주 보성엔지니어링**
 BOSUNG ENGINEERING

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5길 31-14 (한강로3가)
 TEL 02)790-9597~9, Fax 02)790-9903
<http://www.bosung-eng.co.kr>

ISO 9001, 14001, OHSAS 18001 인증